

엠펙스, 국내 안정적 관리로 23개월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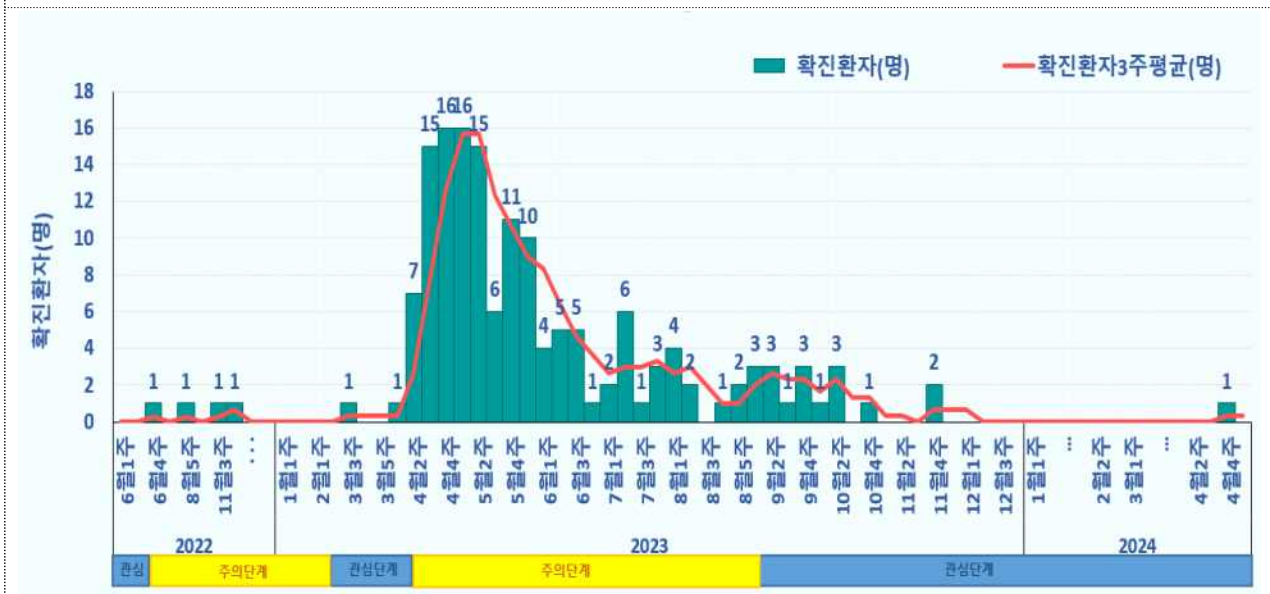
- 올해 환자 1명 발생 등 감소세 지속에 따라 5.1. 위기 경보 해제
- 일반의료체계에서 상시감염병으로 지속적 감시 및 관리 예정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국내 엠펙스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,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종합위험도를 ‘낮음’으로 평가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5월 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.

2022년 6월 국내 첫 엠펙스 환자 발생 후 누적 환자는 156명으로('24.4.29. 0시 기준), 이중 사망자는 없었고 2023년 5월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상황이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.

* '23년 5월 48명 → 6월 22명 → 7월 12명 → 8월 9명 → 9월 10명 → 10월 5명 → 11월 2명 → 12월 0명
→ '24년 1월 0명 → 2월 0명 → 3월 0명 → 4월 1명

< 확진 환자 발생 및 위기 경보 수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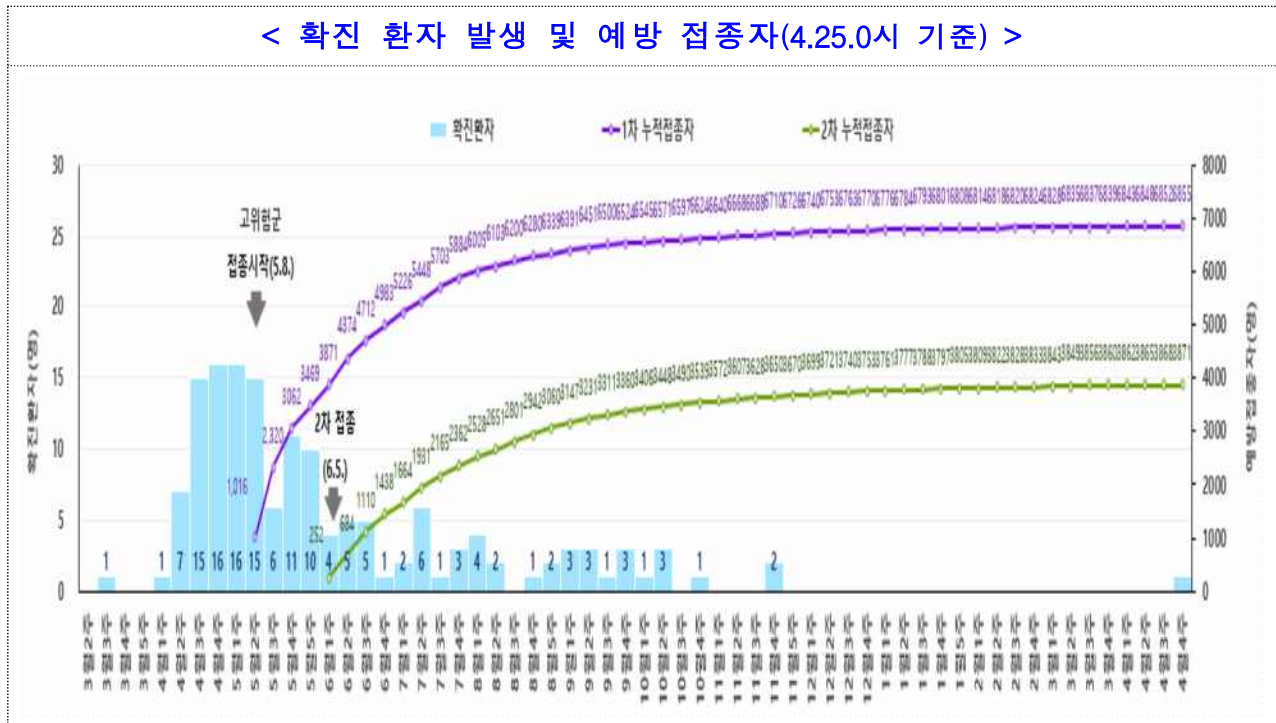


그간 질병관리청은 **엠폙스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위기 경보 단계를 발령·조정***하고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강화, 지자체별 엠폙스 전담 병상 운영,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도입, 의료진 임상 진료 가이드 개발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.

* ('22.5.31.) 관심 → ('22.6.22.) 주의 → ('23.2.17.) 관심 → ('23.4.12.) 주의 → ('23.9.6.) 관심

또한,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보다 **고위험군 내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엠폙스 특성을 반영하여** 다수의 확진 환자가 이용했거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업소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과 함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, 고위험군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하였다.

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36개(의료기관 17, 보건소 19) 기관에서 실시 중('23.5.8~)이며 4.24일까지 1차 접종은 누적 6,855명이고, 2차 접종은 3,871명이 접종 완료하였다.



특히, 올해 1월부터 감염병 급수를 2→3급으로 하향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 편의를 높였으며,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엠폙스 발생 현황을 전달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의심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.

향후, 엠폙스의 제한적인 전파 특성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,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발생 보고*는

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기 경보 해제 이후에도 상시감염병으로 국외 동향 모니터링, 국내 감시 및 관리는 지속할 예정이다.

* '24년 누적(24.1.1~3.31.) 총 41개국에서 1,928명 발생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한 의료계와 지자체에 감사를 전하며, 향후 엠폭스가 산발적이지만 지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, 고위험군 예방접종,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금지, 감염 의심 시 신속한 진료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감염관리와 신고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< 엠폭스 감염예방수칙 >

- ▶ 익명의 사람과의 성접촉 등 밀접한 피부접촉 주의
- ▶ 유증상기(피부발진, 궤양, 림프절병증, 발열 등)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(피부성접촉) 삼가
- ▶ 피부병변은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
- ▶ 손씻기 준수
- ▶ 유증상자와의 화장실, 식기,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
- ▶ 유증상자와의 접촉 의심 시 적극적 백신 접종 등

- <붙임> 1. 엠폭스 질병 개요
 2. 엠폭스 국내 확진 환자 특성(2024.4.29. 0시 기준)
 3. 엠폭스 확진 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(카드뉴스)
 4. 엠폭스 의사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(카드뉴스)
 5. 엠폭스 국외발생 동향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위기대응국	책임자	과 장	여상구 (043-719-9100)
	신종감염병대응과	담당자	연구관	이수연 (043-719-9130)
담당 부서 <협조>	감염병위기대응국	책임자	과 장	김유미 (043-719-9050)
	위기대응총괄과	담당자	연구관	구현숙 (043-719-9081)
담당 부서 <협조>	위기대응분석관	책임자	과 장	유효순 (043-719-7556)
	위기분석담당관	담당자	연구관	이지아 (043-719-7553)

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개별은 질환은 동네 병+의원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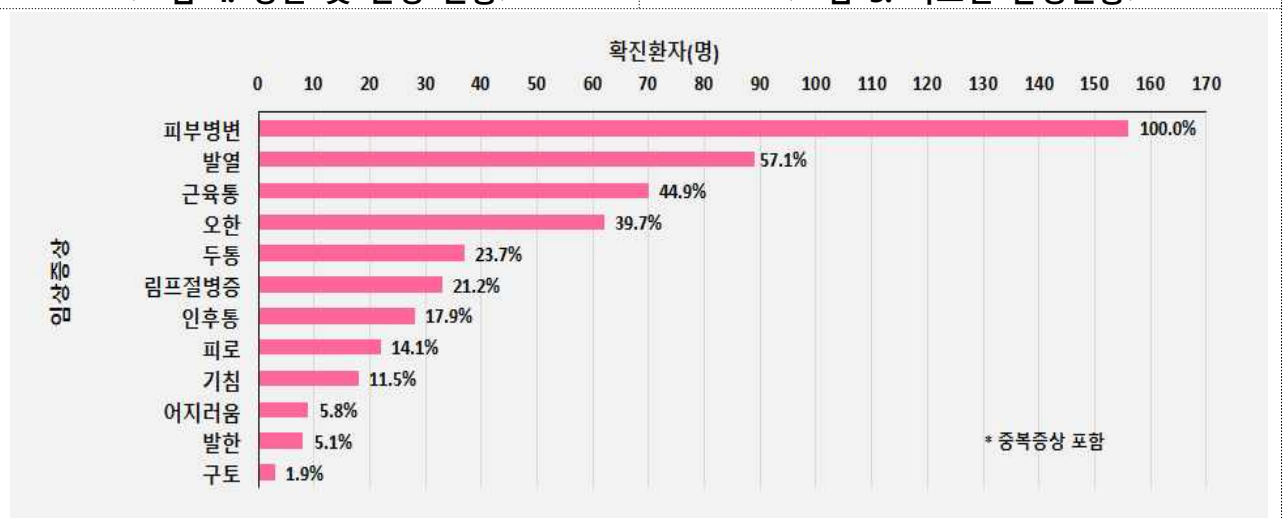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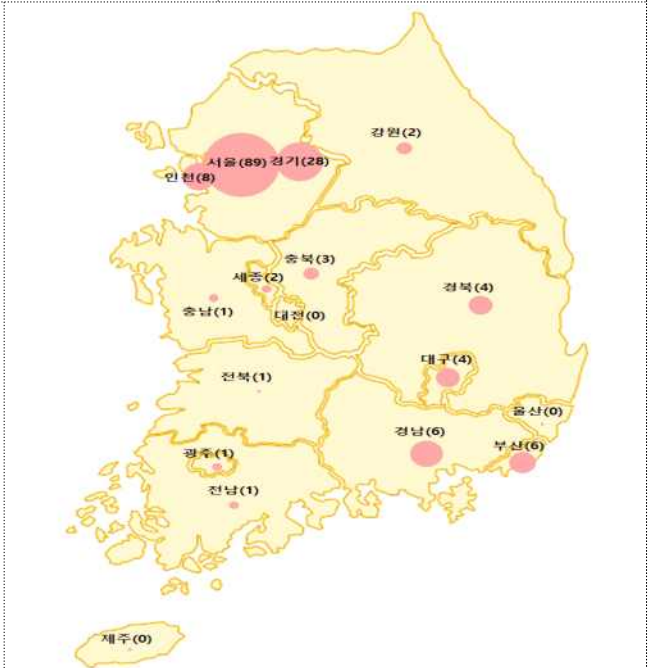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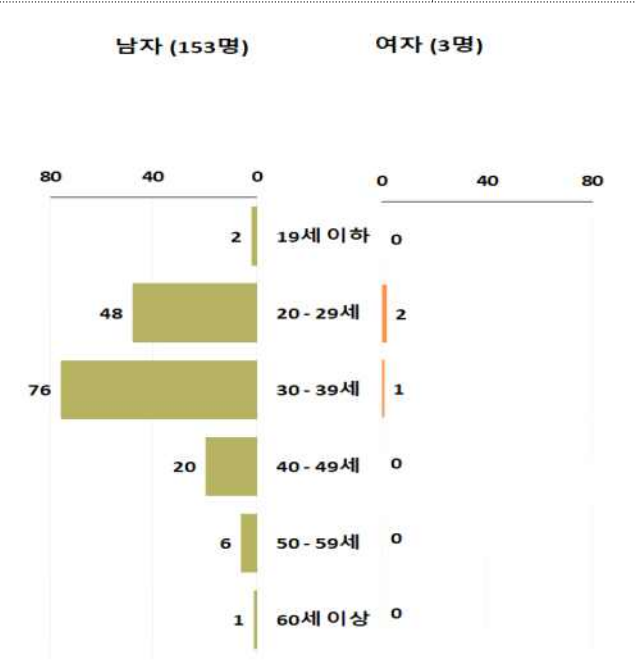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정부 ☎129 / www.e-gen.or.kr



구 분	내 용
정의	원숭이두창 바이러스(Monkeypox virus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, 발진성 질환
방역이력 및 발생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3급감염병 •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- 2022년 이전 대다수 사례는 DR콩고(Clade 1형)와 나이지리아(Clade 2a형)에서 발생 보고,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• 2022년 5월 이후 세계적 유행 시작(Clade 2b형)하여 '23년 발생 감소하였으나, 고위험군에서 산발적 발생 지속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유전 클레이드별 특성 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"> <p>① Clade 1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지역: 콩고를 비롯한 중앙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 - 감염경로: 주로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며, 사람간 전파도 가능 - 치명률: 약 10% <p>② Clade 2a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지역: 나이지리아, 가나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 - 감염경로: 주로 설치류 등을 통한 인수공통 감염 - 치명률: 약 1~6% 미만 <p>③ Clade 2b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지역: 2022년 5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 (전세계 117개 국가에서 발생 보고) - 감염경로: 성매개를 통해 주로 전파되며, 접촉 및 매개물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- 치명률: 약 1% 미만 </div>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숭이두창 바이러스(Monkeypox virus)
감염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(쥐, 다람쥐,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),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,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가능 - (피부병변 부산물) 감염된 동물·사람의 혈액, 체액, 피부, 점막병변과의 직·간접 접촉 - (매개물) 감염환자의 체액, 병변이 묻은 매개체(린넨, 의복 등) 접촉을 통한 전파 - (비말) 코, 구강, 인두, 점막,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- (공기)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
잠 복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~21일(평균 7~14일)

구 분	내 용
주요증상 및 임상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열, 오한, 림프절 부종, 피로, 근육통 및 요통, 두통, 호흡기 증상(인후통, 코막힘, 기침 등)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, 보통 1~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(발열 등)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. 특정부위(항문·생식기)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, 구강 점막 궤양, 항문직장 통증, 안구 통증, 이금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• 발진은 얼굴, 입, 손, 발, 가슴, 항문·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(반점→구진→수포(물집)→농포(고름)→가피(딱지))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,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, 홍역, 옴,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• '22년 5월 이후 세계적 유행 시작한 Clade 2b형은 대부분 2~4주 후 자연 치유되며, 치명률은 1% 미만으로 보고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면역저하자, 8세 미만 소아, 습진 병력,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※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%로 보고됨 • 전구기(3~5일 간): 전염력이 강한 시기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체(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구인두도말, 혈액 등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치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• 필요시,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(테코비리마트) 치료 시행
환자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준주의, 접촉주의, 비말주의 준수 • 확진환자: 감염력이 소실*될 때까지 자택에서 격리 권고, 외래 기반 검사 및 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하고 새로운 피부가 형성되면 감염력 소실 • 의사환자: 외래 기반 진료, 검사 및 치료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방접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(미국)와 EMA(유럽)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•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감염된(감염의 위험이 있는)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·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(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)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, 동물 또는 오염된 물건에 접촉한 경우,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(장소)을 여행하는 경우,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

※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□ 발생

구분	계	'22년	'23년										'24년				
		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
확진 환자(명)	156	4	1	42	48	22	12	9	10	5	2	0	0	0	0	0	1

※ 진단일 기준

□ 성별, 국적, 연령대

구분	계	국적		성별		연령대					
		내국인	외국인	남	여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
확진 환자(명)	156	141	15	153	3	2	50	77	20	6	1

□ 지역 현황

구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확진 환자(명)	156	89	6	4	8	1	0	0	2	28	2	3	1	1	1	4	6	0

□ 인지경로

구분	계	본인 신고	의료기관 신고	밀접접촉자*	비고
확진 환자(명)	156	90	63	3	0

* 확진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접촉자를 선제적으로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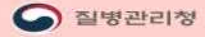
□ 추정 감염경로

구분	계	지역		접촉 경로		
		국내 감염	해외 유입	성 접촉	의료 노출	기타*
확진 환자(명)	156	144	12	141	1	14

* 진술 거부 및 역학 조사 중인 사례

엠폭스 확진 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

2023.12.21.



엠폭스 감염관리수칙

◦ 확진 환자용 안내문 ◦



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준수해야 할 감염관리수칙입니다.
본인 피부병변 확산방지 및 주변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1/7

2023.12.21.



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 방문을 피해주세요.

*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하고 새로운 피부가 형성 시 감염력 소실



의료기관 진료가
긴급히 필요한 경우,
치료 전 엠폭스
확진 환자임을 밝히기

비상상황으로
119에 먼저 연락할 경우,
엠폭스 확진 환자임을 밝히기

2/7

2023.12.21.



자택에서의 격리를 권고하며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세요.

* 면여하지, 임신부 5세 미만 연령대와 생활하는 직할군은 근무제한 권고



밀접한 피부접촉
(입맞춤, 포옹 등) 및
생접촉 삼가기

방문자 출입을 피하며,
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,
피부 병변 가리기,
마스크 착용 및 혼자 식사하기 등
거리 유지하기

3/7

2023.12.21.



주변인 및 타인과 물건·장소 공유를 피해주세요.

* 환구류, 시계, 대용교복, 명화관, 속소, 화장실 등 공유 삼가



손이 닿는 부분에 직접접촉 삼가,
접촉한 경우 환경소독제로
표면 소독하기

세면대, 세면도구 수전, 컴퓨터 등
사용 후 세척 소독하고,
다변도 접촉 부위는
자주 표면 소독하기

표면 소독이 어려운 가구는
천, 베일 등으로 덮어
접촉 예방하기

4/7

2023.12.21.



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세요.



등거가죽이 있을 경우, 열균을 소독제나
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환기하기

피부병변이 있을 경우, 만지지 않고
병변 부위는 만드하지 않기

피부병변은 깨끗하게 유지하고,
병변을 만진 후 손씻기 및 소독 실시하기

구강 내 피부병변이 있을 경우,
소금물로 하루 4번 이상 가글하기

완치 전까지 콘택트렌즈가 아닌
안경 착용하기

5/7

2023.12.21.



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, 세탁물은 고온 분리 세탁해 주세요.



접촉 피할 시, 피부병변을 감싸
반려동물과 직접접촉을 피하고,
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서류를 줄 때,
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 착용하기

폐기물은 소독 후
이중밀봉하여 표면소독 후 배출하기

전자 물품 접촉 시에는
개인보호구를 착용에 원칙단계 적용하기
* 마스크, 장갑, 가운, 보호구 등 상황에 맞게 적용

6/7

2023.12.21.



**엠폭스 확진 환자는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
감염관리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!**

7/7

엠폭스 의사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

2023.12.21.



엠폭스 감염관리수칙

◦ 의사 환자를 위한 안내문 ◦



엠폭스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준수해야 할 감염관리수칙입니다.
본인 피부병변 확산 방지 및 주변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1/7

2023.12.21.



검사결과 확인 전, 의료기관 방문을 피해주세요.



의료기관 진료가
긴급히 필요한 경우,
진료 전 엠폭스
의사환자임을 밝히기

비상상황으로
119에 먼저 연락할 경우,
엠폭스 의사환자임을 밝히기

2/7

2023.12.21.



자택에서의 격리를 권고하며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세요.

* 면역저하자, 임신부, 5세 미만 연령대의 생활하는 직영요양 근무제한 권고



밀접한 피부접촉
(입맞춤, 포옹 등) 및
성접촉 삼가기

방문자 출입을 피하며,
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,
피부병변 가리기,
마스크 착용 및 혼자 식사하기 등
거리 유지하기

3/7

2023.12.21.



주변인 및 타인과 물건·장소 공유를 피해주세요.

* 침구류, 식기, 대변고통, 영하관, 숙소, 화장실 등 공유 삼가



손이 닿는 부분에 직접접촉 삼가,
접촉한 경우 환경소독제로
표면 소독하기

세면대, 세면도구, 수전, 컴퓨터 등
사용 후 세척·소독하고,
다빈도 접촉 부위는
자주 표면 소독하기

표면 소독이 어려운 가구는
천, 비닐 등으로 덮어
접촉 예방하기

4/7

2023.12.21.



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세요.



동거가족이 있을 경우, 원균을 소독제나
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환기하기

피부병변이 있을 경우, 만지지 않고
병변 부위는 만도하지 않기

피부병변은 깨끗하게 유지하고,
병변을 만진 후 손씻기 및 소독 실시하기

구강 내 피부병변이 있을 경우,
소금물로 하루 4번 이상 가글하기

원치 전까지 콘택트렌즈가 아닌
안경 착용하기

5/7

2023.12.21.



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, 세탁물은 고온 분리 세탁해 주세요.



접촉 필요시, 피부병변을 감싸
반려동물과 직접접촉을 피하고,
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사료를 줄 때,
장갑 및 일회용 기운 등 착용하기

매기울은 소독 후
이중발병하여 표면을 2회 배출하기

6/7

2023.12.21.



**엠폭스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
감염관리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!**

* 진단 결과 확인 시에는 확진 환자 수칙 준수 필요

7/7

□ 전체 현황 ('22.1.1.~'24.2.29., '24.4.11.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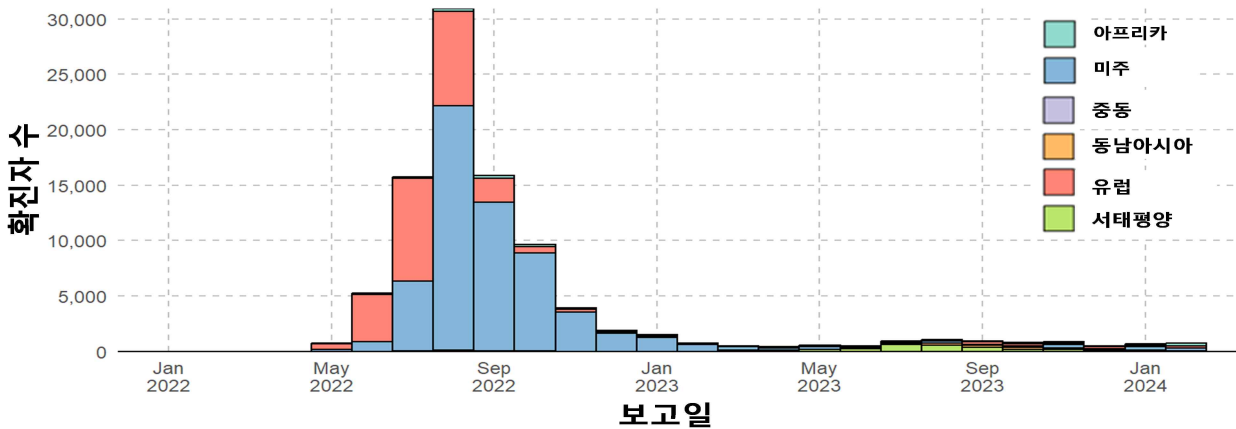
○ (전세계 발생 현황) 총 117개국에서 94,707명 확진, 181명 사망

- '22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였으나, '23년 이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낮은 발생 지속 중

※ WHO는 '22년 7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(PHEIC)를 선포하였으나, '23년 5월 해제

- (대륙별 현황) 북중미(38,680명), 유럽(26,763명), 남미(22,435명), 아시아(3,880명), 아프리카(2,742명), 오세아니아(207명) 누적 발생

- (다발생 국가) 미국(31,800명), 브라질(10,967명), 스페인(7,898명), 프랑스(4,195명), 콜롬비아(4,090명) 등 순으로 누적 다발생



<전 세계 월별 엠폙스 발생 현황, '22.1~'24.2. WHO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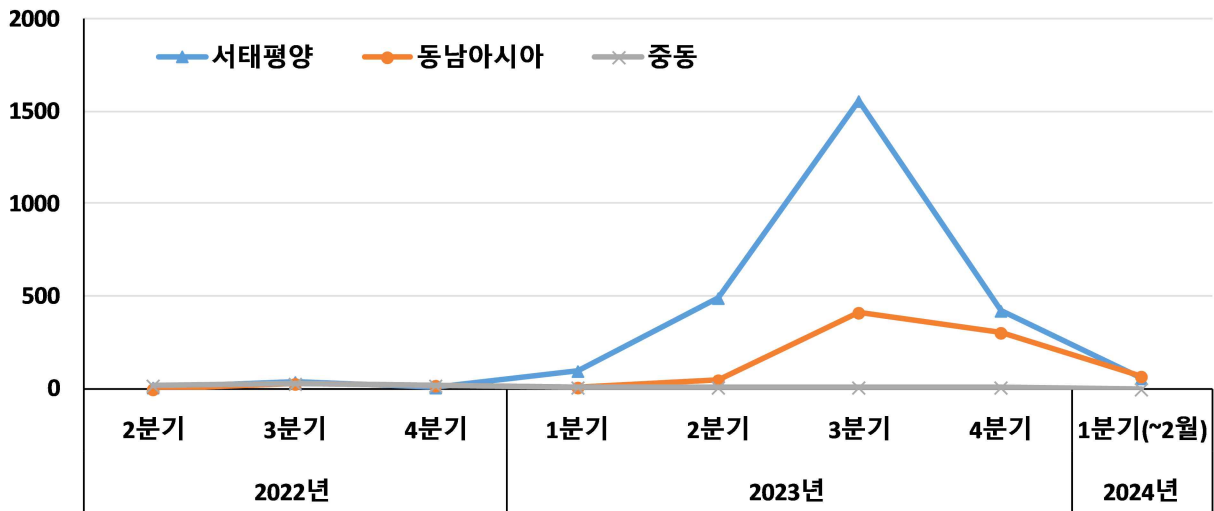
□ 아시아 지역 발생 현황('22.1.1.~'24.2.29., '24.4.11. 기준)

○ (아시아 전체 현황) 총 26개국 3,586명 발생

* 국가별: 중국 1,611명(45%), 태국 743명(21%), 대만 335명(9%), 일본 240명(7%), 대한민국 155명(4%), 베트남 147명(4%), 그 외 20개국 335명(10%)

- (중국) '23년 5월 이후 환자 발생 시작되어 '23년 3분기에 발생 급증하였으나, 이후 다시 급감하여 '24년 이후 발생 보고 없음

- (대만, 일본) '23년 2월부터 지역사회 내 발생 보고되었으며, 2분기 정점 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산발적 발생 중
- (동남아시아) '23년 5월부터 발생 증가하였으며, 태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순으로 일시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 나타남



<아시아의 분기별 었폭스 발생 현황, '22.4~'24.2. WHO>

※ 지역 구분은 WHO 지역사무소 기준이며, 실제 대륙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국가 제외 (호주 등)

□ DR콩고의 Clade I 발생 관련 ('23.1.1.~'24.3.29., '24.4.11. 기준)

○ (DR콩고 발생 현황) '23년 이후 총 의심환자 18,922건 및 사망 1,007건 발생

- 설치류를 매개로 주로 발생하는 었폭스의 Clade I 계통이 기존 풍토지역인 DR콩고에서 '23년 이후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
- 전체 의심사례 중 어린이 비율이 70%를 차지하며,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성 접촉 관련 전파 사례가 보고되어 WHO와 ECDC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(WHO 미디어브리핑, '24.03.22) 및 위험평가(ECDC, '23.12.05) 등을 실시하였음
- 하지만 Clade I의 아프리카 풍토 지역 이외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음